

기윤실 바른가치세미나
젠더와 기독교

2018년 5월 25일(금) 오후 7시
100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 예배실

순서 및 목차

1. 인사 / 사회 목광수 (기윤실 바른가치운동본부 본부장, 서울시립대 철학과 교수)

2. 성경, 젠더에 대해 말하다.

/ 박유미 박사 (안양대 강사, 구약학)

3쪽

3. 지금 여기, 젠더와 기독교

한국교회는 젠더 문제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 강호숙 박사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외래교수, 실천신학)

11쪽

4. 종합토론 / 다함께

발행일 | 2018년 5월 25일

발행인 | 백종국

편집인 | 정병오

편집 | 박제민

발행처 |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주소 04382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54길 30, 401호(세대빌딩)

전화 02-794-6200 팩스 02-790-8585

홈페이지 cemk.org 이메일 cemk@hanmail.net



성경, 젠더에 대해 말하다

박유미 (안양대 강사, 구약학)

들어가는 말

‘참자매’라는 말을 들어보신 것이 있으신지요? 참자매는 모 대학생 선교회에서 남학생이나 남성 지도자들이 여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여성상으로 외모는 화장을 잘하는/ 여리여리한/ 키도 너무 크지 않은 / 드러나는 옷을 입지 않아야 하고 성격은 품어주고/ 조신하고/ 순종적이고/ 반응 잘 해주고/ 센 언어를 쓰지 않고/ 형제를 세워주고 인정해주는 말을 잘하며 신앙은 수련회 때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는/ 눈물도 또르르 예쁘게 흘리며 기타 사항으로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고/ 나이가 많으면 안 되는 여성이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이다. 혹은 교회에서 ‘몸집이 큰 자매는 매력적이지 않다. 그렇지만 형제들은 자매의 외모보다 믿음을 봐야 한다/ 아내는 늘 남편을 위해 외모를 가꾸어야 한다/ 아내는 남편이 바람 피워도 용서해야 한다/ 아내는 남편이 학대해도 이혼하면 안 된다’ 등 여성들의 외모 품평부터 시작해서 여성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고 하는 말들이 교회 강단과 선교단체들에 차고 넘친다. 하지만 반대로 남성이나 남편은 이래야 한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드물다. 그런데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요즘 흔히 젠더감수성이 없다고 한다.

젠더란 여성과 남성의 관계가 사회학적으로 조직되는 방식을 지칭하는 용어로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차이를 통해 여성과 남성을 규율하고 성에 따라 다르게 의미를 부여하는 사회문화적 구조가 존재함을 강조한다. 즉, 타고난 여성과 남성의 성(sex)을 바탕으로 여성성은 이리이러해야 한다. 남성은 이리이러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젠더라는 개념을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은 시몬느 보부아르로 ‘제2의 성’에서 사용한 단어로 보부아르는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규정해온 역사, 전통, 문화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자연적인 성(sex)와 사회문화적 인 성(gender)를 구분하였다. 이것은 여성성이나 남성성은 사회적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지 타고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변화에 의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다.

오늘 이 글에서는 현재 한국 교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남성성, 여성성들이 과연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는 남성성 여성성인지 아니면 그동안 가부장적이고 유교적인 한국 문화가 규정해 온 남성성 혹은 여

성성을 “성경적 남성성” 혹은 “성경적 여성성”이란 이름을 덧붙여 강요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성경에 서는 젠더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남성성 혹은 여성성에 대한 오해들

1) 여성은 남성의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창2:16의 ‘돕는 베필’이란 말은 성경이 여성성을 규정한다고 생각되는 대표적인 말씀으로 남성이 주체이고 여성은 보조자라는 차별의식을 갖게 하였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구약학자들은 이 구절을 여성은 남성의 보조자라고 해석하지 않는다. 원문 뜻이 ‘마주보고 돕는 자’이기 때문에 부부는 혹은 남녀는 서로 도와주는 존재로 상호의존적인 존재를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부는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한 몸이란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화합하는 관계이다. 한 몸인 아내를 멸망하거나 학대하면 자신을 경멸하고 학대하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바울은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였다(엡5:28).

2)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

창3:16의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라는 말은 성경이 남편은 다스리는 자로 아내는 복종하는 자로 규정된 것처럼 해석된다. 하지만 이 구절은 아내는 남편을 휘어잡으려고 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려고 하는 치열하게 주도권싸움을 하는 관계가 될 것을 묘사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정상상태가 아닌 타락으로 인해 망가진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울은 엡5:21-33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부부간의 모습을 상호복종으로 표현한다. 21절에서 그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을 바탕으로 서로 복종하라는 전제를 말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한다. 그리고 다시 33절에서 각기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라며 상호 존중 혹은 사랑으로 결론 내린다. 이것은 당시 가부장 문화 속에서 상당히 파격적인 말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남편이 아내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희생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은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이었다. 현재도 이것은 남성들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구절이기 때문에 남성 목사들은 거의 설교하지 않고 다만 여성의 복종만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바울은 고전7:1-5에서 남편의 몸은 아내가 주관하고 아내의 몸은 남편이 주관한다며 부부가 상대방에 몸에 배타적 소유권이 있다며 평등한 권리를 말하고 있다. 이것은 남성은 바람을 피워도 되고 아내는 정절을 지켜야 한다는 가부장적 생각과 거리가 멀다.

3) 여성은 잠잠해야 한다

고전14:34-35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으니”로 말하고 있는 것을 여성은 공적인 자리에서 말하면 안된다고 가르치며 여성의 침묵을 강요하는 대표적인 구문이다. 하지만 전체적인 문맥(고전14:26-40)에서 보면 예배 시간의 질서를 설명하면서 방언하는 자에게 통역자가 없으면 잠잠하고 예언하는 자에게 다른 사람이 예언하면 잠잠하고 여자들에게 잠잠하라고 하며 무엇을 배우고 싶거든 집에서 남편에게 물으라고 한다. 이것은 예배시간에 여성들이 큰 소리로 질문하고 떠드는 것에 대해 주의를 준 것이지 공적 자리에서 침묵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리고 딤펀전 2:11-14의 순종함으로 배우라는 말을 통해 여성이 가르치거나 말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하지만 이것도 여성이 남성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은 것이지 가르치는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바울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데려다 성령세례가 무엇인지 가르쳤고 바울은 많은 여성 동역자들과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하였다.

4) 여성은 유혹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여성의 옷차림에 대한 지적을 하는 배경에는 여성은 유혹자이고 남성은 피해자라는 생각이 깔려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담이 하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잠언의 소년들은 음녀의 꾀임에 타락하게 되고 다윗은 밧세바의 유혹에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고 남성들이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담에게 선악과를 줄 때 하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에게 주었고 그는 받아먹었다. 또한 다윗이 밧세바를 성폭행한 것이지 밧세바가 유혹한 것이 아니다. 구약에 언급된 모든 성폭행은 남성이 강제적 힘으로 폭행한 것으로 나온다. 그리고 예수님도 간음에 대한 설교에서 남성들에게 음욕을 품고 여성을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고 하시며 눈이 실족하게 하면 눈을 빼고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면 오른손을 자르라는 매우 무서운 말씀을 하셨다(마5:27-30). 즉, 성범죄의 책임은 음욕을 품은 자와 그것을 실행한 자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다. 하지만 오랫동안 교회는 남성들의 성범죄에 대한 책임을 여성들의 옷차림, 태도 등에 돌리며 여성을 꽃땀 취급하였다. 하지만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 그리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그것을 행한 사람의 죄이며 성범죄는 천국을 기점으로 받지 못할 중대 범죄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고전6:9).

5) 여성은 좋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나 디모테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예로 들면서 어머니의 기도가 중요하며 어머니로서 자식을 그것도 아들을 잘 키우는 것이 여성의 가장 큰 사명이라고 이야기 한다. 어머니가 자녀를 신앙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성경은 교육과 양육의 주체를 어

머니만 아닌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에게 말하고 있다. 잠언은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율법을 떠나지 말라(잠1:8)’고 한다. 그리고 신6:7에 따르면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 자녀 교육 명하신다. 또한 바울은 아버지들에게 자녀 양육에 대해 당부한다(엡6:4). 이렇게 자녀에 대한 양육과 교육은 부모 모두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 좋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며 모성성을 강요한다.

2. 구약 속 젠더

특히 다양한 인물이 등장하는 구약의 예들을 통해서 성경이 여성성과 남성성을 구별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1) 구약의 율법 속의 남녀

성경에서 여성성과 남성성을 규정하는 본문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구약에서는 창1-3장을 제외하면 율법 부분에서 여성에게만 특별히 적용되는 제도를 제외하고는 남녀모두에게 주어진 법들이다. 그리고 여성에게 주어진 법들도 주로 성적 순결의 문제이다. 성경이 기록된 시대는 지금부터 3000여 년 전으로 남성 중심의 가부장 문화가 팽배하던 시절이다. 가부장 문화 속에서는 여성의 성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여성의 순결문제가 여성의 목숨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로 다루었다. 대신 남성의 순결문제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구약의 율법 자체에서도 여성성과 남성성을 규정하는 것은 매우 약하다. 그나마도 현재 신약의 교회 시대를 사는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제의법들은 더 이상 지키지 않고 도덕법 중에 남녀 모두에게 주신 십계명만 신약 교회가 중요하게 지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을 근거로 현대 교회가 추구할 여성성과 남성성을 규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2) 구약의 인물들 속의 남녀

a. 남성성

구약에서 당시 사회에서 남성성을 나타내는 특징을 찾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구약에 드러난 인물 묘사 중에서 외모를 가지고 살펴보고자 한다. 요셉의 경우 성폭행을 당할 뻔 할 만큼 어머니를 닮은 예쁜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그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김을 받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가족을 구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의 외모로 인한 어려움을 신실하게 극복한 요셉을 기뻐하셨다. 이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이다. 사무엘이 엘리압의 용사다운 키와 용모를 보고 왕이 될 재목이

라고 내심 칭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며 여호와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질책하셨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보기에 용사와 거리가 멀어 보이는 홍안의 미소년 다윗을 선택하셨다. 다윗의 외모는 전쟁을 할 용맹스럽고 남자다운 용사의 모습과 거리가 멀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을 보시고 그를 선택하신 것이다. 반대로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덩치도 가장 크고 전쟁도 잘하는 용사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물인지가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이스라엘의 왕은 아달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남성인데 이들에 대한 평가 기준은 단 한 가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살았는지 아니면 우상숭배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는지이다. 그 외에 이 왕들의 성품이나 외모, 경제적 능력, 외교술 등은 전혀 평가 기준에 들어가지 않았다. 결국 이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다. 열왕기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전적으로 불순종한 왕들에게 책임을 돌린다.

b. 여성성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여성들의 경우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가된다. 우리가 좋은 어머니의 표상으로 말하는 한나의 경우 남편이 주는 인락함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씨름하였고 하나님께 아들을 주면 바치겠다고 서원한다. 그리고 정말 아들을 주셨을 때 그는 어머니로서의 양육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성소에 사무엘을 데려간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깨닫게 된 하나님에 대해 그녀는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노래를 올린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물이다. 우리가 잘 아는 아비가일도 다윗의 범죄를 막고 나발과 나발의 가문을 살린 지혜롭고 용감한 인물이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의 결정을 반복한 불순종하는 아내이며 성난 다윗 앞에서 그 앞을 막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 용감하고 당찬 여성이었다. 또한 야엘은 여호와의 적이자 이스라엘의 적인 시스라를 자신의 텐트로 불러들여 장막말뚝과 망치로 때려죽인 여성이다. 전혀 조신하지도 여리여리하지도 않다. 반대로 용감한 모습이 에훗 사사와 유사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엘에게 크게 축복하신다. 순종과 헌신의 대명사로 읽히는 룯도 자신과 시어머니의 앞날을 위해 보아스의 잠자리에 뛰어든 인물이다. 구약에서 가장 순진하고 얌전해 보이던 에스더도 일단 자신의 민족을 구하기 위해 결심을 하자 그는 더 이상 순진한 소녀가 아닌 정략적인 인물로 변한다. 심지어 가장 순종적인 인물로 평가받는 사라도 이삭을 낳은 후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며 아브라함을 괴롭혔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선 사라의 편을 드셨다. 구약에서 믿음의 인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여성들 중에 소위 성경적 여성성이라고 말한 순종적이고 얌전하며 모든 것을 인내하는 여성은 등

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희생자 속에 이런 여성들이 등장한다. 말 한마디 못하고 위계에 의한 성폭행의 피해자가 된 밧세바, 남편의 손에 끌려 나가 죽임당한 레위첩, 아브라함의 부당한 요구에 말 한마디 못하고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뻔한 사라, 아버지의 잘못된 서원에 순종함으로 죽임당한 입다의 딸. 구약의 화자는 순종으로 인해 희생자가 되거나 될 뻔한 여성들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측은한 마음을 보인다. 결코 그들을 칭찬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녀들을 희생자로 만든 남성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린다. 여성들을 희생시킨 남성들은 모두 하나님보시기에 악한 인물들로 구약에서도 여성들을 희생시키고 이용하는 것을 정의를 무너진 심각한 죄로 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구약의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느냐가 그녀들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이다. 구약의 여성들은 위기 앞에서 용감했고 자기 주도적이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고 지혜로웠다. 남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역동적이고 생명력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다.

3. 성경이 말하는 젠더

1) 남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다.

성경이 말하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창1:27로 남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과 남녀모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받은 것과 남녀 모두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남녀가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남녀가 모든 영역에 참여하여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칼빈은 남성은 모든 영역에서 통치권을 가지지만 여성은 가정에서만 통치권을 가진다며 여성의 통치권을 제한하였지만 창1:27의 명령은 남녀 모두 모든 영역에서 통치권을 가진다는 원칙을 천명한다.

2) 남녀 모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제자이며 자녀이다.

욥2:28-29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특별히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언급한다. 이 영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구약에서 꿈을 꾸고 이상을 보며 장래 일을 말하는 것은 선지자의 고유한 사역인데 그날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의 사역을 맡기시겠다고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성취된다. 행2:3에 따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며 모든 사람들 즉, 그곳에 있던 남녀노소에게 모두 주의 영이 임한다. 그리고 이들은 각기 다른 나라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 구약에서도 남선지자와 여선지자가 모두 존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전달하였다. 하지만 신약시대에는 선지자와 일반인의 구분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복음전파의 임무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등성을 바울은 갈3:28에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로 천명한다. 이 말은 인종, 계층, 남녀의 차이가 차별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인종, 계층, 남녀의 차이로 차별을 하는 모든 곳에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하는 임무를 받은 곳이다.

3) 예수님의 차별 없는 남녀사랑

예수님은 당시 문화와 상당히 차별되는 행보를 보이셨다. 예수님은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유대 문화 속에서 이런 가부장적이고 위계적인 문화를 깨고 남녀노소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중하셨다. 예를 들어 여성과 말하지 않는 관습을 깨고 수가성 여성에게 말을 거시고 그에게 복음의 진수와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밝히며 그녀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 또한 여성에게 토라교육을 시키지 않았던 당시 문화와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마리아를 가르치신다.(눅10:38-42) 예수님의 발치 아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에 여성들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여성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을 교육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예수의 12제자들과 함께 막달라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들이 그와 함께하며 예수님을 섬겼다. 이들은 단지 돈으로만 도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의 사역에 동참하였다(눅 8:1-3). 여성을 증인으로 삼지 않는 문화 속에서 여성을 부활 증인으로 세우시고 신약 성경은 여성들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

4) 남녀 지도자들이 존재

그리고 성경에는 남녀 지도자들이 존재한다. 숫자는 적지만 하나님은 남성 선지자와 여성 선지자를 모두 세우셨다. 그리고 사사 드보라는 선지자이며 사사로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였다. 그리고 미리암, 홀다, 안나, 빌립의 딸 등 신구약을 막론하고 여선지자들을 세우셨다. 신약교회에선 바울이 여러 여성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하였고 그 중에 집사 뵈뵈는 사도바울의 편지를 로마교회 전달하는 권위를 가진 인물이었다. 그리고 사도 유니아는 '사도들 중에 유명한 (사도)'로 칭송을 받았다. 그리고 딤후전 3:11에선 여성 집사의 자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당시 가부장적 문화로 인해 남성

비해 숫자가 적기는 하였지만 여성들이 이스라엘 혹은 교회의 지도자로 자신의 몫을 감당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 사용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오는 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야기되어온 여성성과 남성성의 문제를 살펴본 결과 성경은 우리에게 여성과 남성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평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인자를 행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 싸웠는지 약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하는 용기를 보여주었는지를 보신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었던 것도 조신한 처녀라는 명예 대신 온갖 스캔들에 휘말릴 위험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순종한 마리아의 용기덕분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매우 가부장적이고 여성차별적인 문화 속에서도 그 문화를 뛰어넘는 여성들의 신앙적 용기를 높이 평가하며 믿음의 인물들로 성경에 기록한다. 그런데 이런 복음의 역동성과 초월성을 잊고 현재의 문화가 규정하는 남성성과 여성성으로 성도들을 얽매려할 때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복음의 본질을 잃게 된다. 우리는 젠더를 말하기에 앞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무엇인지의 문제로 돌아가야 한다. 인간 즉, 남성과 여성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며 남성과 여성 모두 하나님을 닮은 성품과 대리통치자로서의 위엄을 가지고 있다. 남성만이 여성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현재 교회내의 젠더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지금 여기, 젠더와 기독교

한국교회는 젠더문제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강호숙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외래교수)*1)

들어가는 말

인간은 남성과 여성으로 이뤄진 성적인 존재로서의 존엄과 독특한 가치를 지닌 존재이다. 복음주의 성윤리학자 Stanley J. Grenz는 “인간의 성은 인간 존재를 내포하는 것으로서 생물학적, 심리학적, 문화적, 사회적, 영적의 모든 것이다. 성은 몸인 동시에 정신이며, 인격인 동시에 교제다. 한 인간이 되는 것은 성적 존재가 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였다. 남녀를 구분하는 성의 개념에는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학적 ‘젠더(gender)’, 성(性)을 유동적이고 다원적으로 보는 ‘섹슈얼리티(sexuality)’ 이 세 가지가 있다. 성과 젠더를 구분하자면, 성은 생식과 집단이라는 측면이 강하고, 젠더는 사회문화적, 역사적, 심리적 틀을 취한다. 젠더(gender)는 지난 25년간 유전 공학 및 생식 공학의 발전과 더불어 신체와 젠더 역할(gender role)에 대한 인식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국제적으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로 부상하게 되었다(크리스티나 폰 브라운. 잉에 슈테판, 젠더연구). 정희진은 “젠더는 계급처럼 사회와 인간을 형성하는 가장 강력한 재료 중 하나이며, 사회문제를 재구성하고 재창조하는 가장 힘 있는 조물주다. (...) 젠더는 한 사회의 구조, 시스템, 규범, 법, 정책, 제도, 이데올로기, 문화, 물질 토대이다”라고 하였다.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틀(J. Stott)는 인간됨을 성 활동(sexuality)과 정치적 활동(political activity)으로 보았다. 이로 볼 때, 인간의 섹슈얼리티(sexuality)에 의해 발생하는 젠더문제는 사랑과 결혼, 가정폭력과 이혼, 동성애와 인공수정, 성도착, 간통과 성매매, 성차별과 성폭력, 동거와 낙태, 젠더정체성과 젠더 역할 등 중대한 인간성의 문제들이다.

오늘날 계급과 인종, 젠더와 정체성, 연령과 장애 등 사람을 분류하는 다양한 잣대 중 가장 중요한 젠더 문제를 꼽으라고 한다면, 발표자는 여성신학자로서 지금 여기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페미

* 이 글은 본인의 아티클 “교회리더의 성(聖)과 성(性)에 관한 연구: 성의 사각지대를 형성하는 교회 메커니즘(church mechanism) 문제에 대한 실천신학적 분석”, 『복음과 실천신학』 47(2018):9-43을 일부 참고였으며,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이하 ‘복교연’)이 2018년에 개최한 “여성배제를 넘어서” 1차포럼에서 발표한 것을 일부 수정하였다. 본 글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말할 때는 ‘성’(性)을, 사회문화적으로 겪는 성적 문제를 말할 때 ‘젠더’로 사용하고자 한다.

니즘과 ‘미투운동’으로 제기된 성차별과 성 혐오, 성별권력에 의한 성폭력이라고 말하고 싶다. 2016년 강남역 여대생 살인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던졌던 화두 ‘페미니즘’으로 인해, 21세기에도 여전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일상에서 차별과 폭력, 혐오와 살인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여성들의 두려움과 분노가 힘을 얻게 되었다. 아울러 2018년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로 촉발되어 법조계, 문화예술계, 대학교, 정치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투 운동’(Me Too Movement)은 성별권력에 의한 불평등과 성폭력에 대한 저항운동으로서, 권력자 남성들의 조직적 관행에 맞선 여성들의 용기 있는 폭로였고, 이를 지지하는 ‘위드 유’(With You) 운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페미니즘과 미투운동을 통한 여성들의 주체적인 정체성 찾기와 남녀평등을 염원하는 거대한 물결이야말로 개인의 삶과 공평한 사회로 전환하는 엄청난 동력이 될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교회 주류는 성차별과 성 혐오, 성추행과 성폭력의 비윤리적인 죄에 대해선 침묵하는 반면, 성경의 정신에 부합하는 인권과 정의, 평등과 인간성을 외치는 페미니즘과 미투운동에 대해 부정과 혐오의 시선을 갖고 있다. 일부는 ‘페미니즘이 기독교를 허무는 불온하고 위험한 이념’이라고 상정하여 무조건 거부하거나, 심지어 어느 기독교대학에서는 동성애와 관련시켜 페미니즘이 주장하는 인권과 평등사상이 모두 ‘거짓’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는 페미니즘에 대한 오해요 무지이다. 강남순 교수는 “교회가 인간의 평등이나 자유, 즉 인권에 대해 너무나 편협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 ‘예수가 우리를 구한다’고 생각한다면, 제도적 틀과 교리로부터 예수를 구해서, 성차별과 가부장제에 저항하는 ‘페미니스트’로 만들어야 하고, 성별, 계층, 인종, 장애 여부, 성 정체성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의 권리를 지지하는 ‘급진적 평등주의자’로 만들어 예수가 기독교의 중심에 있는 존재로서 현대사회에서 그 의미를 지녀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매우 중요한 지적이다. 2017년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의 신앙의식 변화에 대한 발표에 따르면, 한국교회의 해결 과제 및 미래상을 묻는 질문에 ‘사회적 약자 돕기’가 필요하며, 여성 안수 의견을 묻는 질문은 5년 새 10% 이상 증가(52.9%→69%)하였고, 젠더문제에 대한 의견 즉, 이혼, 낙태, 혼전 성관계, 간음, 동성애 등에 대한 질문에 60.1%가 상황에 따라 가능하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이하 ‘한교여연’)가 최근 20-40대 교회여성 1,34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젊은 여성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교회 내 불평등한 성역할과 성차별, 소통부재라고 답했으며, 한국교회와 교단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교육과 목회자의 의식변화를 요구하였음을 감안해야 한다. 크리스티나 폰 브라운과 잉에 슈테판은 “모든 변화들은 여성개인의 자기이해나 일상의 숨 쉬는 순간까지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젠더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는 핵심개념이다. 오늘날 사회가 던진 도전을 직시하고, 그 새로운 변화의 물결과 더불어 자유와 정의, 해방의 이념으로 다시 살리고자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젠더는 문제를 푸는 하나의 열쇠”라고 하였다.

지금까지 한국교회 주류는 인권과 남녀평등의 시대흐름 및 성(性)의 필수적인 요소들을 간과해왔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페미니즘을 교육받은 젊은 교회여성의 젠더인식과 성 평등, 인권과 같은 젠더문제에 대한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페미니즘을 부정하면서 성차별과 성폭력과 같은 심각한 젠더문제를 덮어 버린다면, 그리스도 복음의 실현과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기는 어렵다. 하여 한국교회의 젠더인식과 젠더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은 매우 시급한 것 같다. 그러므로 본 발제는 성과 기독교신앙의 관계를 알아보고, 페미니즘과 미투운동이 지금 한국교회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국교회에 드러난 젠더문제를 권력과 젠더, 언어와 젠더, 성적 메커니즘 차원에서 살핀 후, 한국교회가 젠더문제에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실천적 대안을 고민하고자 한다.

1. 성과 기독교신앙의 관계 (성의 목적, 성과 인간성, 몸과 성의 중요성과 거룩성)

1) 성의 목적 & 성과 인간성

성과 기독교신앙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적인 존재로 만들었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신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데에 있다. 성은 인간의 생명과 사랑의 가치와 연결된 육체적, 정신적, 영적이라는 전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신학자 루이스 스미즈(Lewis Smedes)는 성을 선한 피조물로 보아야 할 이유를 첫째, 남녀가 서로 다른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만드신 건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관련되기 때문이며 둘째, 성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로서 사회성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며 셋째, 성은 하나님 형상의 일부로서 긴밀한 교제를 향한 인간의 욕구로서 인간성과 관련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안토니 티슬턴(Anthony C. Theiselton)은 “창세기 2장 23절의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는 극적인 감탄사는 남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친근함과 친밀함을 암시한다”고 하였다. 갈비뼈는 종속의 의미가 아니라, 반할만큼 서로 친밀함, 자기 몸처럼 사랑하도록 배려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있다고 봐야 한다. 또한, 사도신경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형상의 일부로서 성이 선사하는 ‘친밀감’의 욕구와 교제는 남녀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위한 필수적인 인간성이다.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원형상이며 참 인간인 예수를 닮아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즉, 인간성 회복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조된 남녀는 인간실존과 전인차원에서 상호보완적 의미를 지닌 파트너다. 제인 그로비전(Jane M. Grovijn)은 신성과 에로스에 대한 성 이해의 회복은 에로틱한 인간관계의 초상으로서 하나님 창조에 대한 이해를 도와준다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서로 다른 몸을 지닌 존재로 만들었다는 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회성과 친

밀성을 발현하도록 의도한 것이다. 성적인 존재로서의 자유와 책임, 성적 에너지와 친밀감은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게 하며 인간성을 이루기 때문이다. 노르만 피텐지(W. Norman Pittenge)는 젠더의 남용과 젠더 표현의 무책임성은 인간존엄과 인간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하나님이 성을 만드신 목적은 생육과 대화, 친밀과 교제, 문화와 신앙,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것이기에,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젠더 활동과 젠더문제를 포함해야 하는 것이다. 남녀의 조화와 균형, 평등과 견제, 연합과 사랑의 질서는 인간실존과 전인성에 부합한다. 한국교회가 젠더와 기독교신앙의 관계성을 인지하는 가운데, 남녀의 인격적인 연합을 통해 주 안에서 하나 됨을 이뤄가도록 힘써야 하리라 본다.

2) 몸과 성의 중요성과 거룩성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각각 다른 몸으로 지으면서 성을 각인시켰으므로, 몸과 성은 분리될 수 없다. 부활의 첫 열매되신 주님의 부활체는 몸을 지닌 영의 모습이었다. 몸의 부활은 남녀 간의 생식의 기능은 없어도(마 22:30), 성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로서 이해된다. 이에 대해 안토니 티슬턴은 사도바울이 현세에서 자신의 몸에 입히는 손상을 영원한 중요성을 띠는 ‘비인간화’로 보았고, ‘영혼구원’은 몸과 관련한 개인의 젠더관습과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였다. 성적음행을 공중위생에 대한 위협이나 상대방에게 가하는 심리적 부당행위 정도를 넘어, ‘부활한 생명으로 꽃을 피워야 하는 인격의 뿌리에 타격을 입히는 죄’로서 그리스도와 철저히 분리되는 일이고, 교회연합을 파괴하는 일이라는 것이다(제임스 모팻). 성경은 인간의 몸과 관련해 성적(性的) 거룩함을 말씀하고 있다(고전 6:9, 13, 18; 고후 12: 21; 골 3:5; 살전 4:3-5; 히 12:16, 13:4; 벧후 2:7, 18). 로마서 12장 1절과 고린도전서 6장 12절-30절에서 볼 때, 신자는 부활로 말미암아 자기 몸이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과 자신의 젠더관습이 부활할 몸과 관련되어 있음을 깊이 인식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해서 몸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의학박사이자 심신의학자인 크리스티안 노스롭은 가부장 의식에 익숙한 사회구조는 여성의 감정을 경멸하며 억제하도록 가르침으로써 여성의 의존성을 부추기고, 감정을 쏟아내지 않으면 억압된 감정은 에너지를 고갈시켜 고통의 원인으로 발전하게 된다고 하였다. 건강한 몸과 정신을 유지하려면 진정한 정체성과 욕구를 드러내고, 감정과 직관, 몸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국교회 주류는 신자 개개인의 몸과 젠더관습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현재까지 여성의 몸을 단순히 자녀를 출산하는 정도로 인식하거나, 교회성장을 위한 ‘여중’ 정도로만 보아왔다. 한국교회의 여성을 존중하거나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 교회여성들은 자신의 몸에 대한 존중과 몸으로 경험하는 생육과 임신, 출산, 양육, 낙태, 갱년기 등과 관련해 복음적 위로를 받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해왔다. 특히 가부장제가 강한 교단에 속한 여성일수록 교회와 타인을 위해 몸을 혹사하거나 희생하는 걸 ‘여성의 역할’ 인양 살아왔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신자의 몸을 위하는 분이시

다. 해서 남녀모두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돌보지 않음은 불신앙이요, 몸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직무유기이다. 신자의 몸과 젠더관습이 영혼구원과 연결되어 있으며, 신자는 교회의 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여 몸을 소중히 여기며 몸의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

2. 젠더정체성과 젠더역할

젠더인식으로서의 젠더정체성은 인간의 정체감 발달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할 뿐 아니라, 젠더역할(gender role)에 대한 인식과 관념의 기초가 된다. 복음주의 학자 스탠리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의 근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 일차적이고 가장 심오한 차원으로서 인격적 정체성의 유일한 결정 요인이라고 하였다. 즉, 남성성과 여성성은 자신의 신분,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 사고방식, 관계방식 모두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그런데 정신분석학과 철학, 심지어 종교에서의 젠더정체성과 젠더역할에 대한 가부장적 성차담론을 정치화, 도덕화, 신비화하면서 젠더문제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시켜 왔음을 볼 수 있다. 우선 젠더정체성, 젠더역할과 관련한 이론을 살펴보면, 정신분석학에서 프로이드는 남성은 남근을 가진 완전한 존재, 문명에 적합한 주체, 공격성과 사디즘(sadism), 초자아, 윤리성을 지닌 존재로 보는 반면, 여성은 남근이 없는 불완전한 존재, 문명에 부적합한 주체, 수동성, 의존성, 마조키즘(masochism) 나르시시즘(narcissism)인 존재로 보았다. 캐롤 길리건(Carol Gilligan)은 도덕적 관점에서 남성적 윤리를 ‘정의의 윤리’로, 여성적 윤리를 ‘돌봄의 윤리’로서 규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성차에 대한 이러한 편견은 ‘남성은 공적이고(다스림)/ 여성은 사적이다?(순종과 침묵)’, ‘남성은 강하다/ 여성은 약하다?’, ‘남성은 정의롭고/ 여성은 변덕스럽다?’라는 이론들을 파생시켰고, 이런 성차에 대한 편견이 성희롱, 성폭력과 같은 젠더문제를 유발하게 된 것이다. 여성이 갖는 젠더정체성은 수동성이나 나르시시즘, 관계지향성, 보살핌의 윤리, 요조숙녀, 천사, 모성성도 아니라고 하였다. 부정적 요소든 긍정적 요소든 ‘여성성은 이것이다’라고 규정하는 순간부터 분리가 일어나고, 분리는 억압을 낳고, 억압은 병적 징후를 만들게 되므로 여성 안의 남성성, 남성 안의 여성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것이 억압적 여성성이나 모성성을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조현순).

심리학 연구에서는 남성성으로 취급되는 독립성이나, 합리성, 용기와 여성성으로 취급되는 공감능력, 부드러움, 보살핌 등은 사실 남녀 모두에게 바람직한 덕목이며 실제로 누구나 잠재적으로 양성적인 능력을 지닌 것으로 보고 있다. 기독교 심리학자인 메리 스투어트 반 루우윈(Mary Stewart van Leeuwen)은 젠더정체성과 젠더역할에 대해 균형 잡힌 이해를 준다. 첫째, 심리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로 남녀는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더 많으며, 둘째, 본성(nature)과 양육(nurture)은 서로 영향을 미치고, 셋째, 자신의 젠더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자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중요한 측면으로서, 남녀는 생식이라는 최소한의 젠더역할을 제외하고는 ‘상보성’가운데 창조, 다스림, 사회성, 성령의 열매, 정의와 평화, 자유를 실천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주체적으로 자신의 젠더정체성과 젠더역할에 대한 창조적이며 자유로운 논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3. 지금 여기, 페미니즘과 미투운동이 한국교회에 던지는 의미

1) 페미니즘과 여성의 인권

페미니즘은 “여성됨에 대한 여성 스스로의 근원적 물음으로 시작하는 이념”으로서, ‘여성됨이 곧 인간됨’이라는 인식적 바탕을 두고 있다. 18세기 서구에서 시작된 근대사회로의 본격적인 전환은 자유 평등사상을 불러와 여성들도 남성과 같은 동등한 인간으로서 권리를 주장하였다. 차별적인 교육제도, 법률, 관습에 대한 항의를 중심한 자유주의적 흐름은 특히 여성의 참정권이 확보되는 20세기 초 중반까지 여성운동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게 되었다. 페미니즘은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하다고 외치려는 게 아니라,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와 고통이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문제 삼아, 남녀 모두 성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능력과 희망에 따라 살아가도록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김영희, 새여성학). 오늘날 여성들의 주체적인 인식적 물음과 참정권, 인권과 교육받은 권리, 가정폭력방지법 등 보호와 권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건 모두 페미니스트들의 외침과 사력을 다한 공헌 덕분이다. 안타깝게도 한국사회 일부에서는 페미니즘을 기존의 질서를 깨며 혼란을 야기하는 이념으로 보고 있다. 여기엔 다소 과격한 ‘메갈리아’나 ‘위마드’에 대한 반감이 섞이면서, “*웃자고 하는 말에 죽자고 달려 든다*”, “*여자도 군대가라*”는 식으로 페미니즘에 대한 남성들의 격렬한 반격이 나타나고 있다. 2016년 N사의 여성 성우 계약해지 사건이나, 웹툰 작가를 검열하겠다는 ‘에스컷 운동’, 일련의 여성혐오 트렌드를 기사화한 ‘시사 IN 절독 사태’ 등 2017년에는 이런 공격이 더 광범위해지고 조직화 되고 있다. 한편, 김상구는 [종교, 믿음을 팔고 권력을 사대]라는 책에서 여성인권의 사각지대로서 한국의 종교계가 심각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한국교회의 주류로 자처하는 보수교단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급물살을 탄 급진적 페미니즘과 여성신학에 대한 오해와 거부로 ‘페미니즘’에 담긴 여성이해의 단초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천부인권을 차단시키고 있다.

“페미니즘이 남성도 살린다”라는 말처럼, 기독교안에서 여성의 인권을 들여다보는 일은 여성만

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녀공동체인 교회를 위해 살펴볼 필요한 주제이다. 고무적인 일은 제19대 대통령인 문재인 정부가 미투운동을 지지하면서, 성추행과 성폭행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지시한 일이다. 또한, 2018년에 국회에 발의한 개헌안 10조를 보면,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라고 하여 국민을 ‘사람’으로 변경하여 영토 안에 있는 국민으로서보다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일이라 하겠다. 페미니즘이 말하는 “여성도 인간이다”, “개인적인 것이 곧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캐치 프레이즈(catch phrase)는 여성의 인권을 요구하는 출발선이다. 정희진은 “개인적인 것이 왜 정치적인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는 이유는 현대 사회의 공(公). 사(私) 영역 분리 이데올로기는 여성 인권 침해의 가장 핵심적인 논리적 기반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페미니즘이 말하는 인권과 지향하는 목표는 하나님 형상으로서 인간성 회복에 맞닿아 있다고 본다. 인류공동체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친밀함과 소통, 연합과 평등의 공동체다. 따라서 어떠한 강요나 억압과 차별이 없는 자유와 상호존중, 그리고 조화와 균형을 통해 인간성을 이루어 나가도록 남녀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미투운동을 바라보는 시선

서지현 검사가 법조계 내 ‘미투운동’을 촉발시켰다면, 최영미 시인은 문단계에서 ‘미투운동’을 촉발시켰다. 최 시인이 ‘En’시인을 ‘괴물’이라고 밝힌 까닭은 “아무리 그가 인류의 자유와 평화를 노래해도, 세상의 절반인 여성을 비하한다면 그의 휴머니즘은 가짜다”였다. 여기서 미투운동이 지향하는 목표가 인간성임을 확인하게 된다. 현재 일부에서 페미니즘과 미투운동을 바라보는 시선 가운데 몇 가지 잘못된 접근법을 지적할 필요가 있겠다. 첫째, ‘가해자 대 피해자’의 구도로 보는 게 아니라, ‘남자 대 여자’라는 대결구도로 보는 측면이다. 페미니즘과 미투운동에 담긴 강성 이미지만 부각시켜, 실제로 차별받고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억울한 사연과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둘째, 페미니즘과 미투운동을 사적이거나 하찮은 것으로 치부하는 측면이다. “미투운동은 진보를 분열시키기 위한 공작정치의 함정이다”, “남자 모두가 그런 게 아닌데, 왜 남자 모두를 범죄자 취급하나?”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들린다. 이는 인간성에 대한 물음을 지닌 페미니즘과 미투운동을 가부장적 시각으로 편협하게 접근한 것이다. 셋째, 여성 이슈에 대해 접근할 때,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오해하는 측면이다. 여기엔 ‘펜스 룰’(Pence Rule)이 대표적인 예인데, 나쁜 일이 벌어지면 ‘여성은 감정적’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여성이 먼저 유혹했을 것이다”, “여성이 조신하게 행동했어야 했다”, “여성과 식사도 하지 않겠다”라는 식의 남성 중심의 조직과 문화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미국 인디애나 퍼듀대 교수).

한국교회가 젠더문제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묻기 전에, 무엇을 문제로 보는가에 대한 시선이 선행되어야 한국교회의 기여와 역할을 가늠해볼 수 있다.

본인이 미투운동을 바라보는 시선은 **첫째**, 미투운동은 “피해자가 죄인이다”라는 가해자 중심의 이데올로기를 깨는 운동이다. 남성의 나르시시즘(narcissism)은 자신들을 흠 없는 존재로 보존하기 위해, 피해여성에게 ‘꽃뱀’이나 ‘이단’이라는 가해자 누명을 씌어 죄책을 전가시켜왔고, 피해여성들은 마치 가해자인양 자신들을 탓하며 숨죽이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둘째, 미투운동은 성별권력에 의한 성차별과 성폭력 고발운동이다. 권력을 갖고 있는 가해 남성은 조직 내 힘을 갖고 있지 않는 여성을 업무의 일환이나 신앙교육과 상담이라는 명분으로 합리화하면서, ‘그루밍’을 통해 성차별과 성폭력을 유발하여 왔기 때문이다.

셋째, 미투운동은 여성의 언어 되찾기 운동이다. 보수교단은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라”를 진리로 둔갑시켜 침묵과 순종하는 여성을 ‘믿음 좋은 여성’으로 고착화시키면서 여성들의 사유와 질문을 거세시켜왔다. 하지만 도로테 쾰레(Dorothee Soelle)는 “모든 신비는 힘을 사용하고, 지배하고 소유하고 벗어나게 하는 데 기여하는 언어의 숙명에 참여한다”고 하였다. 해서 여성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면 남성들을 무지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 진리라는 이름으로 여성들 입에 채워진 ‘침묵의 족쇄’를 풀어 여성의 언어를 되찾아, 여성의 소리와 억울한 피해사실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미투운동은 민주주의(여성과 정치의 만남: 심상정 의원), 평등, 정의, 인권, 윤리를 지향하는 인간성 운동이다. 이에 한국교회는 페미니즘과 미투운동이 지향하는 ‘인간성 회복’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

4. 한국교회에 드러난 젠더문제 : 권력과 젠더, 언어와 젠더, 성적 메커니즘

필자가 한국교회의 젠더의식이 매우 낮다고 진단하는 이유는 이천 여년의 교회사에서 성을 창조한 이유와 목적보다는 ‘남녀질서’라는 가부장 이데올로기로 천착했기 때문이다. 남성교부들과 남성 신학자들에 의해 구축되어온 가부장적 신학과 교회담론은 성과 사랑의 관계성을 간과함으로써 여성도 하나님 형상을 입었다는 의미를 놓쳐버렸다. 또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여성을 구원보다는 죄와 연결시켜 왔다. 이러한 가부장적 여성관이 여성들에게 죄책감과 낮은 자존감을 심어주어,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목사에게 성적으로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했으며, 목사에게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가져와 결국, 성적 타락에 빠지는 요인이 된 것이다. 실제로 2014년 국감 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2014) 강간과 추행의 성범죄를 저지른 전문직 성범죄 가운데 성직자의 성범죄가 1위라고 밝혔는데, 단일직종 성범죄 1위가 목사라는 콘텐츠가 올라온 뒤, 목사들의 성범죄와 관련한 기사가 SNS를 타고 보도된 바 있다.

따라서 한국교회에 드러난 젠더문제를 보는 관점은 세 가지다.

첫째, 권력과 젠더의 문제이다. 미셀푸코는 권력은 ‘성’을 통해 육체를 지배하는 구조를 만드는데, 이때 절대 권력을 지닌 사람은 성의 최대 소비자가 되어 마치 ‘육망의 전차’처럼 질주하도록 만든다고 하였다. 목회자의 권력집중과 성(性)을 남용, 악용하기 쉽게 만드는 당회, 노회, 총회라는 의결기구에서 작동되는 ‘권력과 젠더 시스템’ 문제 때문이다. 목회자들은 영적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전문 직업에 속하는 자로서 권력 남용의 성격이 강하며, 성의 형태로 악용된다는 것이다(신원하 교수). 오늘날 목사에게 설교권과 축도권, 치리권과 성례 집행권, 인사와 예산, 행정 등 교회 전반의 업무를 결정하도록 집중되어진 권한을 견제, 분산시켜야 할 과제를 갖고 있다.

둘째, 언어와 젠더의 문제이다. 한국교회 안에서 설교자나 발화자 대부분은 모두 남성이다. 인간은 언어를 지닌 존재이며, 언어는 사상과 정신을 지배하는 것이다. 한국교회 주류는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라”를 진리로 둔갑시켜 침묵과 순종하는 여성을 ‘믿음 좋은 여성’으로 고착화시키면서 여성들의 사유와 질문을 거세시켜왔다. 남성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명분으로 설교강단에서 성역할 분업, 여성 배제, 여성비하, 성희롱적인 설교를 아무 제재 없이 하고 있으며, 성경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모, ‘장로부인’이라는 호칭을 통해 남성에 종속되고 부종하는 젠더정체성을 학습시켜왔다. 이 외에도 신학교나 교회에서 공공연하게 “목사는 돈, 권력, 여자 조심하라”면서, 자신들의 성적 욕망을 마치 여자가 ‘잠재적 가해자’인양 몰고 있다.

셋째, 교회의 성적 메커니즘 문제(sexual mechanism in church)이다. 리자 융(Lisa Jung)에 따르면, 교회가 남성의 죄책을 ‘유혹하는 이브’의 원죄로 돌려 이를 정신적, 신앙적으로 소화시켜, 교회여성의 성적 권리와 자유를 빼앗는 ‘성적 메커니즘’을 통해, 성의 종속화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현재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 목사들은 자신들의 범죄가 확인된 후에도 피해 여성에게 오히려 ‘꽃뱀’, ‘이단’이라는 가해자의 뺨을 씌우는 게 다반사이다. 설상가상, 작금의 한국교회는 남성권력자로부터 억울한 성추행과 성폭력을 당한 피해 여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어주려 하기보다는, 가해자 목사 편에서 조직적으로 여성들의 소리를 거세시키면서, 목사의 성범죄를 은닉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작동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는 2016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의 평양노회와 총회가 대법원에서 성추행 판결을 내린 전병욱 목사를 사도신경에 명시된 ‘거룩한 공회’의 정체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징계하지 않은 일이다. 이는 교회나 교단이 성(性)을 오용, 남용하며 이를 무마시키기에 용이한 의사결정 권력구조와 체제를 갖춘 집단으로 변모하게 되면서, 목회자 성범죄 문제가 노회나 교단조직에 의해 ‘은닉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남성 권력중심의 성(性)적 이데올로기가 교회헌법을 비롯해 당회, 노회, 총회의 교회정치와 행정, 축도권, 설교와 교육, 상담과 심방 안에 작동하여 성적 위험성이 노정되고 있다. 하여 교회의 성적 메커니즘 문제는 남성의 지배적 욕구나 남성 중심주의에 의한 힘의 불균형과

성(性)배제에 따른 인격성 상실과 비윤리성, 무책임성을 양산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교회에 드러난 성차별과 성폭력 등과 같은 젠더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성범죄에 빠져들기 쉬운 구조에 들어가 있는 목사들과 성의 사각지대에서 무방비 상태로 놓이게 되는 여성, 그리고 교회의 거룩 회복과 교회갱신을 위한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

5. 나가는 말 : 한국교회는 젠더문제에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

남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아 그분의 신적인 것을 반영하는 존재라는 명제는 남녀파트너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신학적 기초이다(창 1:26-28). ‘파트너(partner)’라는 단어가 영어로-붙어 ‘partner’의 ‘동반 헤드십을 가리키는 말에서 파생된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조된 남녀는 인간의 요소이자 피조세계와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을 돌보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왕적 지도자들이다. 교회공동체는 남녀를 차별하지 않으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자유와 정의, 사랑과 평화, 친교와 거룩함을 실현해가는 유기적 교회공동체이다. 또한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신부 공동체로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신부성이 함의하고 있는 ‘여성성’을 발현해야 할 공동체이다. 위르겐 몰트만의 말처럼, “진정한 자유와 해방은 ‘남성됨’이 아니라, ‘인간됨’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남녀 모두 인격적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 회복 즉, 인간성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교회 주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性)의 목적엔 관심 없이 남성 헤드십에 의한 ‘남녀질서’에만 몰입한 결과, ‘동성애 문제’를 제외하곤 성차별과 성별권력에 의한 성폭력 등의 중요한 젠더문제에 대해 신학적, 목회적으로 너무 빈곤했던 게 사실이다. 이제 한국교회는 벽처럼 높이 쌓아 올린 가부장 조직과 강자중심의 교리를 허물고, 눌린 자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러 이 땅에 임하신 그리스도 복음의 정신과 성령의 위로하심에 응답해야 한다. 본인은 성령은 무엇을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라, 놀리고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올려주는 위로의 영이시라고 믿는다. 한국교회는 지금 여기, 한국사회에 일고 있는 페미니즘과 미투운동의 저항의 물결과 인간성 회복을 향한 새로운 도전에 응답해야 할 때다. 한국교회가 젠더문제에 어떤 기여와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 몇 가지 제안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하나님께서 만든 성(性)을 인간의 모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소중한 선물로 펼쳐 내기 위해선, 현재 젠더 태도와 젠더 활동의 위기에 직면해야 하며, 성경의 원리와 인간경험의 상호작용에 근거하여(John C. Howell), 가부장제, 성폭력, 성차별, 낙태 등 젠더문제에 대해 여성신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강하고 균형 있는 신학과 신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둘째, 성별 관계뿐 아니라, 억울하게 고통 받는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들 편에 서서 함께 비를 맞아주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웃사랑의 실천연대가 중요하다.

셋째, 여성의 자기이해와 인간관, 인권감수성과 젠더감수성을 위한 페미니즘 교육이 요구된다. 신학교에서 성경과 여성, 여성친화적인 목회담론, 기독교신앙과 젠더와 관련된 커리큘럼을 개설하고, 교인과 목회자를 위한 성윤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넷째, 교단차원에서 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내외 전문가를 포함한 조정위원회와 대책기구를 마련하며, 성범죄 처리에 대한 기록 공개 및 심사자 자격과 전문성, 목사의 권징규례와 권징 후 목사직 처리에 관한 교회헌법 조항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여성 윤리위원장을 세워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범죄에 대한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젠더에 대한 인식전환과 더불어, 개인 존중과 은사에 따른 남녀 수평적인 직분구조 속에서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결정권한을 부여하고, ‘핫라인’ 설치, 설교 피드백, ‘여성 커뮤니티’, 여성 쉼터 마련을 통해 인권보호를 강화하며, 치유와 평등한 성문화 담론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섯째, 교단차원에서 가부장제, 성폭력, 평등과 정의에 대해 미래 지향적이고 포용력 있는 실천적인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 남녀인력들을 세워 상담과 심방, 교육, 환경과 남북평화통일, 민주주의와 정의실현과 같은 사회적 책임을 위한 남녀파트너십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